

- 주요 뉴스: 미국 6월 고용지표 호조, 7월 0.75%p 금리인상 전망 강화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시사
 - 독일 재무장관 고문, ECB 정책 지원 시 조건 첨부 촉구
 - 주요 신평사, 영국 존슨 총리 사임을 영국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평가
- 국제금융시장: 미 고용 호조에 따른 연준 자이언트 스텝 전망 강화 및 위험회피 완화
미주가 약보합[-0.1%], 달러화 약보합[-0.1%], 미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고강도 통화긴축 우려와 연착륙 기대가 경합
 유로 Stoxx600지수는 혼조세를 지속하다가 미 고용지표 발표 후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 상승보다 위험회피 완화의 영향이 소폭 우세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자이언스 스텝 선반영 및 침체 우려 완화로 반등
 독일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여파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4.7원, -5.3원) 0.4% 하락, 한국 CDS 하락

		7/8일	7/7일	전일대비			7/8일	7/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99.4	3,902.6	-0.08%	국채 금리 10y	미국	3.08%	2.99%	9bp
	유럽	417.12	415.01	0.51%		독일	1.35%	1.32%	3bp
	중국	3,356.1	3,364.4	-0.25%	CDS 5y	한국	52bp	53bp	-1bp
	일본	26,517	26,491	0.10%		중국	80bp	82bp	-2bp
	한국	2,350.6	2,334.3	0.70%	위험 지표	EMBI+	457bp	458bp	-1bp
환율	달러지수	107.01	107.13	-0.11%		VIX	24.64	26.08	-5.52%
	유로화	1.0185	1.0160	0.25%		WTI유	104.79	102.73	2.01%
	엔화	136.10	136.01	-0.07%	원자재	구리	353.2	358.2	-1.40%
	위안화	6.6946	6.7007	0.09%		금	1,742.5	1,740.2	0.13%
	원화	1,300.4	1,299.8	-0.0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고용지표 호조, 7월 0.75%p 금리인상 전망 강화

- 미국 6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37.2만명 증가하며 예상(26.5만명)을 상회했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꾸준한 상승을 시사(+0.6%). 이로 인해 연준이 6월에 이어 7월 FOMC에서도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
 - 아틀란타 연은 GDPNow 지수가 시사하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큰 폭 상승(7/1일 -2.08% → 7/7일 -1.87% → 7/8일 -1.24%)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올해 GDP 성장률이 1%를 밑도는 등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며 '23년에는 1.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최근 일부 경제지표에 성장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면서, 연준이 7월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75bp 인상을 강하게 지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시사

- 비스코 정책위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안정 목표 수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ECB는 성장둔화를 유발하지 않고도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경제지표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긴축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

■ 독일 재무장관 고문, ECB 정책 지원 시 조건 첨부 촉구

- 펠트 재무장관 고문,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정책 지원을 원하는 모든 국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ECB로부터 받는 모든 정책 지원에 경제개혁 촉진과 관련한 조건을 붙일 것을 요구

■ 주요 신평사, 영국 존슨 총리 사임을 영국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평가

- Moody's는 보수당 내 지도부 경선이 장기화되면서, 영국 내 증가하고 있는 생활비 압박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연될 것이라고 평가
- S&P는 차기 총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술적 침체, 10%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등 여러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국 경제 성장률이 재정긴축 부담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할 경우 영국 신용등급은 하방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

■ 중국인민은행, 유동성 공급량 위기 대비 축소 조짐

- 금주(7/4~8일) 인민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RP)를 통한 유동성 순회수 규모는 3,850억 위안으로 4/4~8일* 이후 최대. 이에 대해 CITIC 증권은 통화정책이 위기대응 체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신호라고 평가 *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기간

■ 체코 외환보유액 감소세 가속화(5월 €1,564억 → 6월 €1,513억)

- 체코 중앙은행(CNB)의 6월 외환보유액(유로화 환산)은 전월 대비 €51억 감소했으며, 감소분 중 상당 비중은 현물환 시장을 통한 유로화 매도 개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CNB는 5월에도 현물환 시장을 통해 €35억을 매도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폴란드 중앙은행(NBP),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임박 시사

- 글라핀스키 총재, 폴란드 경제에 성장둔화 및 기술적 침체 징후가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거의 근접했다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안정 또는 하락을 시작하면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

■ 태국 중앙은행(BOT), 바트화 약세^{6년래 최저} 불구 대외불안 대응에 자신

- 새주 시장운영전략국장, 환율이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이도록 할 것이고 현재 환율은 태국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상태이며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아난초티쿨 통화정책국장, 태국은 금리인상에 뒤처지지 않았고 미국의 인상 속도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대외 포지션은 대외 불안을 견뎌내기에 충분히 강하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7/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비농업고용 증가(전월비, 만명): 37.2, 5월(38.4), 예상치(26.5)
- 미국 6월 실업률: 3.6%, 5월(3.6%), 예상치(3.6%)
- 일본 5월 경상수지(억엔): 1,284, 4월(5,011), 예상치(1,720)

■ 주요 경제 이벤트(7/11 현지시각 기준)

-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BOJ 구로다 총재, BOE 베일리 총재의 통화정책 발언
- 일본 5월 핵심기계수주, 덴마크·노르웨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발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